

Digital Humanities Research Achievements and Some Initiatives in Korean Chinese Literature

Chung, Yong-gun

Senior Researcher, BK21 Business group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macho703@naver.com

Abstract

Objectives With the declaration of the digital humanities, ‘digital technology’ has been illuminated as one of the new methodologies of study in the humanities field. In the field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various studies have been published applying digital humanities methods according to this tren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digital humanities method in the field of Chinese literature and present future applications and alternatives.

Methods Since 2010, when the digital humanities declaration was made, the results of research that applied the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submitted in the field of Chinese literature will be summarized and its significance will be examined. It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meaning and complementary points of each research result.

Conclusions Conclus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visualization of humanities information through digital technology, knowledge map construction, and automatic classical processing were suggested. This work is possible after a vast amount of Chinese literature data has been accumulated. Therefore, the first thing to do is to organize the existing database more substantially and expand the area of data that have not yet been secured. And for this work, the digital humanities spirit of “openness, sharing, and collaboration” is needed.

Keywords Digital humanities, Digital technology, Korean Chinese literature, openness, sharing, collaboratio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2.312.001

Received: Nov. 30. 2023 ; Reviewed: Dec. 10. 2023 ; Accepted: Dec.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한국 한문학 분야의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성과와 몇 가지 구상들

정용건

목 차

1. 서언
 2.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 한문학
 3. 몇 가지 구상들
 4. 나가는 말
-

1. 서언

2010년을 즈음하여, 미국·프랑스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문학 선언」이 연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들 선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공유·개방·협업’의 정신 아래 전통적인 인문 문학과 학문 체계를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과 적극적인 결합·융합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역설하였다.¹ 이를 계기로 인문학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학문적 대안으로서 본격 부상하게 되었고, 각 영역에서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고 그간 봉착해 있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이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실물 문헌 자료의 번역과 분석에 집중해 오던 연구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생소한 단어·개념을 새로 학습해야 했고, 별개의 영역이라 여겨 왔던 타 전공과의 융합과 협업을 적극 고려해야 했다. 존재하지 않던 길을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작업이 항상 그렇듯, 인문학 연구자들 역시 낯선

1 김용수(2017). 한국의 디지털인문학: 위기, 희망, 현실. 비평과 이론, 22, 44-47.

상황 속에서 적잖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이내 그러한 변화에 차츰 적응해 나갔고, 이를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매해 디지털 인문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수십여 편의 관련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것은 물론, 디지털의 힘을 빌려 인문학적 토양을 보다 두터이 하고 다양한 인문정보를 시각화한 성과들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학과를 신설하고 관련 강의를 학기마다 개설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반까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경한 분야로 여겨졌던 디지털 인문학은, 이제 어느덧 당당한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서 그 지위를 다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기술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한문학 분야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다양했다. 새로운 분위기를 선도하거나 그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가 하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여 헤매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든 간에, ‘디지털’이 우리의 기본 삶은 물론 연구 영역에까지도 깊숙이 스며든 이상 그것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문학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역사도 어언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한문학 영역에서는 디지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용의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처럼 회고와 진단, 점검의 시점을 맞아, 본고에서는 한국 한문학 분야에 집중하여 그간 디지털 인문학이 이루어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성취 가운데 어떠한 한계와 아쉬움이 있는지 살피고, (디지털 인문학의 역사와 비슷한 기간 동안 한문학 공부를 해온 신진 연구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시도해 보고 싶은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 한문학

먼저 그간 한국 한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성과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한문학은 2010년 훨씬 이전부터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여 이와

함께 발전해 왔다. 1995년 『조선왕조실록』을 CD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구축한 <한국고전종합DB>(200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1999),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문헌종합목록>(200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2008) 등 고전 자료를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DB화하는 작업이 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사고전서(四庫全書)』,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 등 디지털화된 사전과 공구서가 보급됨에 따라, 전고 및 출처 검색의 속도와 정확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흔히 ‘인문학 전산화(Humanities Computing)’ 또는 ‘전산 인문학(Computational Humanities)’이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초기 성과들은, 종이책이나 실물 문헌 자료를 통해서만 수행되던 그간의 연구 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냈다. 현재 많은 한문학 연구자들에게 어색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디지털’은, 기실 그 본격적인 도입 십수 년 전부터 이미 우리의 연구 활동 속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후반 정보 기술이 한층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한문학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또한 이전에 비해 한층 심화·발전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2010년대 이후 이루어진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유형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2010년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한문학과 디지털 기술 간의 공존·협업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여전히 고전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문학 영역에는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자료가 상당하며, 발굴된 것이라 하더라도 디지털의 형태로 연구자·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각 기관에서는 저마다 소유·보관하고 고전 자료를 전산화해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의 사례이다.² 2000년대 이래 『조선왕조실록』과 『한국문집총간』, 고전번역서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해 오던 한국고전번역원은, 기존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더해 DB 자체의 내실을 한층 두터이 해나가고 있다. 단순히 기존처럼 원문 자료를 스캔해

2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참조. <https://www.itkc.or.kr>

업로드하고 이를 텍스트화하는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표점·교감문, 번역문 각주 정보, 이체자 검색, 시소러스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폭넓은 DB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8년부터 『한국고전총간』 편찬·간행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고 이를 DB화해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역사서’와 ‘문집’에만 제한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범주를 일반 고전에까지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디지털장서각> 사이트를 구축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있으며,³ <한국학자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각 권역별 자료센터의 성과를 망라하고 고문서를 비롯한 여러 원전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등 종합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⁴

이밖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⁵,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⁶, 서울대학교 <규장각>⁷,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⁸ 등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역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리뉴얼을 통해 자료 제공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한국학문헌목록>⁹, <한국학자료센터>¹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한국경학자료 시스템>), <한국유경DB>¹¹, <연행록DB>¹²) 등 각 대학 연구 기관에서도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DB 구축 현황에도 불구하고, 세부 분야별로 보면 여전히 수집·정리되어야 할 자료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에 이들을 한데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현재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서사 문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야담(野談)의 정본화, 번역, DB 구축 작업에 대한 논의,¹³ 조선 시대 과시(科試) 자료를 체계

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장서각> 참조. <https://jsg.aks.ac.kr>

4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포털> 참조. <https://kostma.aks.ac.kr>

5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조. <https://db.history.go.kr>

6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참조. <https://www.nl.go.kr/korcis>

7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참조. <https://kyu.snu.ac.kr>

8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참조. <https://www.ugyo.net>

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한국학문헌목록> 참조. <https://riksdb.korea.ac.kr>

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참조. <https://kostma.korea.ac.kr>

1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디지털 동아시아학 <한국경학자료 시스템> 참조. <https://koco.skku.edu>; <한국유경DB> 참조. <https://ygc.skku.edu/ygc/index.do>

1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디지털 동아시아학 <연행록DB> 참조. <https://kcer.skku.edu>

13 양승목, 유인태(2022). 야담의 데이터, 야담으로부터의 데이터: 한국 야담 데이터 모델의 구상. 한국문학연

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DB화하고자 하는 논의,¹⁴ 궁궐 및 누정기의 기문을 아카이브화할 방안을 제시한 논의,¹⁵ 한국여성한문학종합DB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논의¹⁶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문 고전은 자료의 특성상 그 발굴과 보존, 열람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현전하는 고전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많은 이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 ‘개방·공유·협업’이 디지털 인문학에서 내세우는 핵심 가치라 한다면,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풍부한 자료의 보고(寶庫)를 지어두고 이를 폭넓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일이야말로 그러한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2. 고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문정보학(Cultural Informatics)

디지털 아카이브 및 DB화 작업에 힘입어 고전 자료가 적지 않게 축적됨에 따라, 이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자료 간에 존재하는 인문 관계와 요소들을 뽑아내고 시각화한 성과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문정보학(Cultural Informatics)’이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방법론은 디지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각 분야에서 주요하게 시도되고 있다.¹⁷

인문정보학의 기치 하에 가장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①인문지식을 다루는 텍스트를 컴퓨터 가독형 데이터로 전

구, 68. 한편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야담·필기 연구 방법론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권기성(2018).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전망: 필기, 야담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인문학연구, 1, 9-29.

14 김경, 김광년(2021). 조선시대 과시(科試) 자료의 DB 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 사업의 개요와 전망. 동아한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과시연구센터. kuhjhm.korea.ac.kr/hjhm/research/social_intro.do

15 박순(2017). 고전문학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연구: 누정기(樓亭記)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2020). 궁궐 관련 한문학 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시론. 남명학연구, 68.

16 장진엽(2022). 한국 여성 한문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향 검토. 한문학논집, 63.

17 ‘인문정보학’은 인문지식을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화하고, 그것의 학제적·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도록 부품화하며, 그 부품 사이에 새로운 문맥(Context)을 부여하는 기술을 아울러 가리킨다. 인문정보학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김현(2013).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환하는 전자 텍스트 편찬 방법 ②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한 지식자원이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방법 ③문자 텍스트의 형태로만 유통되던 인문 지식을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하에, 미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여럿 제출해 내기도 하였다.

인문정보학 분야의 성과로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먼저 <조선시대 친족관계정보망시스템(Inis)>를 언급할 수 있다.¹⁸ 이는 『만성대동보』에 수록된 361성관, 136,000여 명의 인물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혈연-혼맥 관계망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가문의 족보만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인물-친족 관계를 한층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암일기(支菴日記)』의 시각화 사례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¹⁹ 이는 조선 시대 문인 윤이후(尹爾厚)가 남긴 『지암일기』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지역 등 다양한 인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낸 성과이다. 문헌에 대한 해석과 해설이 지면 이외의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⁰

이와 같은 인문 정보의 시각화 노력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곳에서는 기존에 구비해 둔 방대한 양의 고전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문헌 속에 담긴 여러 정보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각화해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집총간』 저자의 행력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각 인물 간 생애 행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저자행력정보>나 인물 정보와 사건 정보를 추출하여 관계의 속성을 효율적·입체적으로 검색·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물관계정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각 인물이 형성한 혈연·인척·사승·교유 관계를 시각화한 <인물관계망>은 각 자료에 저마다 흩어져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단서들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 살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에서는 <한

18 조선시대 친족관계정보망시스템 참조. 하영휘, 백광렬(2015). 만성대동보 자료를 활용한 ‘친족관계망정보 시스템 개발: 개발실무와 활용방안, 이론적 함의. 서울: 진인진(출처: <https://www.digitalhumanities.kr/11>). 한국 디지털인문학 허브:티스토리).

19 <지암일기(支菴日記):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 jiamdiary.info.

20 이밖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그간 디지털 인문학적 성과들은 해당 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h.aks.ac.kr

국고전종합DB)의 이와 같은 부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²¹

한편 고전 자료의 정보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 시각화하는 방식은,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식 체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조선 시대 5종의 유서(類書)(『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지봉유설(芝峯類說)』, 『성호사설(星湖僿說)』,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만국사물기원역사(萬國事物紀原歷史)』)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수용·유통된 지식의 범위·성격·변동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지식 DB’를 구축하고 이를 ‘지식 지도’(Knowledge Map)의 형태로 시각화하였다.²² 또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조선 후기 연행록을 비롯한 각종 한중 문헌 자료를 토대로 당대인들의 교유와 지식 교류 양상을 지식 지도로 정리하고자 하였다.²³

이밖에 대규모 원시 데이터에서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또한 유의미한 연구 방법론으로 부상하여, 문헌 자료 분석을 한층 다채롭게 해 주고 있다.²⁴

이러한 작업은 허다히 흩어져 있는 고전 자료 속 인문 정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숨은 의미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방법론이 심화 논의되고 유용한 성과들이 꾸준히 제출된다면, 독서와 번역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인문 정보들을 한층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3. AI를 활용한 고전 자동 처리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한문학에서 근래 가장 주목과 기대를 받는 분야는 역시 AI를

21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cnuhanja.com/v1/main.php)

2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유서 지식DB 및 지식지도>(encyclo.korea.ac.kr)

23 진재교(2022). 한국 한문 고전자료와 학술 플랫폼. 대동문화연구, 117.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디지털동아시아학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jisik.skku.edu/front/member/login.do)

24 정성훈(2021).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亂中日記』 텍스트 연구. 국어국문학, 197. ; 박기완, 광지은, 김용태(2022).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본 사립파와 훈구파의 변별성. 한문학논집, 63. ; 정성훈(2023). 구조적 토픽 모델을 활용한 ‘일성록’ 분석: 정조대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64. ; 박혜영(2023). N-gram 분석을 활용한 양사(兩司) 계획시 의미 해석. 한국문학연구 72. ; 박혜영(2023). N-gram 분석을 활용한 묵죽도 제화시 연구: 조선 전기 작품을 대상으로. 우리문학연구, 79.

활용한 ‘고전 자동 처리’일 것이다.

2016년 알파고의 놀라운 등장과 함께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그 적용에 대한 관심이 각 분야에서 크게 높아지고, 구글·네이버·바이두에서 제공하는 자동 언어 번역기의 성능이 나날이 진보하여 일상 영역에 보편 사용됨에 따라, 불가능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한문 분야에서도 고전 자료 자동 처리에 대한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와 관련된 성과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역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자동 번역> 서비스일 것이다.²⁵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대한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21년 1월부터 그 시범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⁶ 『승정원일기』는 국가 차원의 역사 기록물로서 방대한 원문(인조~고종) 및 번역(인조~영조/고종)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투식으로 이루어진 대목이 많아, 자동 번역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물론 상소(上疏)·입시기사(入侍記事)·교서(敎書) 등 분량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 기록들의 번역 수준은 (그대로 활용이 어려울 정도) 현저히 떨어지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사(啓辭)·서목(書目) 등의 번역 정확도는 매우 높아 실제 번역 현장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궁하지만, 한문 자동 번역에 대한 가능성을 일부나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런가 하면, 번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문 원전을 자동적으로 처리·가공해 주는 기술이 근래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실용화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스캐너 등을 통해 활자화된 현대어를 텍스트 형태로 인식해 주는 OCR 기술은 이미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이 이제 한문 영역에서도 도입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구축한 <知能OCR系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²⁸ 국내에서도 정확도는 아직 높지 않지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OCR프로젝트>(고도서 한자 인식/고도서 이미지 검색/필사본 자전)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어,²⁹ 키보드를 통해 원문을 입력하는 수고는 향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25 한국고전번역원 <한문고전자동번역>(aitr.itkc.or.kr)

26 2019년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천문고전 원문에 대한 자동번역서비스도 개발하여, 현재 『승정원일기』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27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고전 한문 원문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바이두 번역(fanyi.baidu.com))

28 知能OCR系統(ocr.ancientbooks.cn)

29 한국국학진흥원 OCR프로젝트: 고도서 한자 인식(ocr.ugyo.net/ocr/#self); 고도서 이미지 검색(ocr.ugyo.net/isearch); 필사본 자전(ocr.ugyo.net/chodic). 이밖에 <vflat> 같이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캔

예상된다. 나아가 근래에는 컴퓨터 인식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초서(草書)에 대해서도 OCR 기술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⁰ 그런가 하면, 자동 표점 및 고유 명사 분류 기술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중국 사이트 〈吾与点: 古籍自动整理系统〉에서는, 한문 백문(白文)을 기입하면 문맥을 인식해 자동으로 구두점을 찍어줄 뿐 아니라 인명·지명·서명 등 고유 명사에 별도 표시를 해 주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³¹ 대략의 문맥 파악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 자료의 자동 처리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은, 텍스트 분석뿐 아니라 입력·가공 등 연구의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컴퓨터 기술의 힘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학 영역에서는 2010년 이후 한층 고조된 디지털과 인문학의 결합에 대한 목소리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그것은 DB 구축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디지털 전산화에서부터 인문 정보의 정리와 시각화, 고전 자동 처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확보-탈초-해석-번역-의미화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한문학 연구의 개념과 공정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디지털의 도움으로 연구 시야 또한 극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3. 몇 가지 구상들

이처럼 디지털 인문학은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만한 가능성과 성과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들어 AI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와 시도들을 살펴보면, 한문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장악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어떠한 방법론을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때 다양한 시행착오와 혼란이 존재하는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의 경우에도 실제 결과에 있어 아쉬운 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취지와 구상은 적절하게 여겨졌으나 초기 설계 부실 혹은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원하는

앱이 새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30 허철, 조성덕, 최동빈(2023). 인공지능 활용 초서 OCR 개발 과정과 과제. 한문학논집, 65.

31 〈吾与点: 古籍自动整理系统〉(pkudh.xyz)

결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가 하면, 오랜 공력을 들여 만든 성과임에도 실제 연구나 학습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한문학 영역에서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과물의 ‘개방성’이다. 소위 ‘디지털 시대’가 기존과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정보가 개방·공유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 선언」에서 그 핵심 정신으로 ‘개방·공유·협업’을 꼽았던 것 또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렇지만 한문학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료의 보유와 장악 자체가 중요한 연구 자산·역량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 기조에 적절히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³² 한문학 영역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수용이 이제 거스르기 어려운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각 기관과 연구자들은 무엇보다도 자료에 대해 열린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 인문학적 성과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용이하게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수없이 다양한 한문 자료를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는 DB 시스템의 추가적인 구축, 누구나 작성과 접근이 가능한 위키(Wiki) 방식의 도입³³ 등이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효용성’이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과 얼마나 변별되는, 유용한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이다. 고전 자료에 잠재해 있는 인물·지리·개념 등 다양한 인문 정보를 추출하여 나름의 의미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간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적지 않게 존재해 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과거 독해와 분석을 통해 막연하게만 짐작하고 있던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결과물이 대상의 대체적인 경향만을 보여주거나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뿐, 구체적 의미 분석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경우도 적지 않다. 혹은 (설계 과정, 역량, 시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그 결과값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많은 고민과 공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가 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한 채 묻혀 버리고 만다. 이는 곧 디지털 인문학 적용에 있어

32 유인태(2023). 디지털 한문학의 가능성과 그 실현에 관한 모색. 동아한학연구, 17.

33 김지선, 장문석, 유인태(2021).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최초의 설계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성과물이 실제로 어떠한 효용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재의 한문학 영역에 있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개방성’과 ‘효용성’이라 할 때,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연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음에서는 필자가 짧은 기간 동안 한문학(조선 전기 한문학/한문산문) 분야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향후 수행해보고자 하는 바들을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3.1. <한문 서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한문 원전의 DB 구축은 20세기 말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한국 고전 자료 가운데는 여전히 디지털-텍스트화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한문서사’이다. 야담, 필기, 고소설 등의 서사 자료는 한국 고전문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금오신화(金鰲新話)』, 『기재기이(企齋紀異)』 등 문학사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한문 소설들조차, 웹상에서 신뢰도 높은 원문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문서사DB 구축이 타 고전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시작된 한문 원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그간 역사서, 문집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어, 서사물에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던 점에 이유를 돌릴 수도 것이다. 혹은 자료의 개방과 공유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그간의 연구 풍토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많은 고전 영역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문학(고전문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한문서사의 DB화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실 고소설의 경우 십수 년 전에 관련 연구자들이 각 장르별로 작품을 모으고 교감을 진행한 성과가 이미 제출된 바 있으며,³⁴ 적지 않은 수의 작품들은 신뢰할 만한 번역 성과 또한 존재한다. 더욱이 이후에 새로 발굴된 서사 자료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전 자료 OCR 인식 및 구두·표점

34 장효현, 윤재민, 최용철, 지연숙, 이기대(2007). 교감본(校勘本) 한국한문소설(韓國漢文小說), 1~7.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입력·정제 작업이 한층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인력 확보, 소장처(자)와의 협의 등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DB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해당 애로 사항들에 대한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야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논의는 참고 할 만한 매우 고무적인 사례이다. 동국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조선 시대 20종의 야담 자료를 대상으로 정본화 작업을 수행하고 향후 이에 대한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성과를 참고·보완하고 혹 그것과 연계까지 이루어 나간다면, 향후 야담과 한문 소설은 물론 한글 소설, 구비 서사까지 아우르는 <한국고전서사DB>의 구축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총간』 등 각종 DB를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해 두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과의 협업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한국고전종합DB>의 구축을 계기로 한문학에 대한 관심도와 연구 성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고전 서사에 대한 연구를 한층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서사’의 범주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한국 고전, 한문 산문’의 맥락 속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서사 문학을 보다 용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2. 조선 문인 인적 네트워크 시각화

한문학 연구가 타 고전 분야 연구와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혈연-시승-교유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적 관계에 대한 파악을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특정 인물이 어떠한 생애 이력을 지니고 어떠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의 학적 지형을 한층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³⁵ 한문학 연구자 가운데는 보학(譜學), 문인(門人) 관계, 당색(黨色) 등 인물

35 필자는 조선 전기 문학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틀이 되었던 ‘훈구-사림/사장-도학’의 이분 구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대 문인 및 그 작품 세계에 존재하고 있던 입체적 면모를 규명하고자 한 박사학위논문은

네트워크에 밝은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오랜 기간에 걸친 관심과 학습 과정이 없으면 쉽게 얻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익숙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디지털 기술이 지니고 있는 가장 뛰어난 지점 중 하나-인문 정보의 효율적 시각화-의 힘을 빌려 이를 표현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구축한 <인물관계정보>나 <조선시대 친족관계정보망시스템(Inis)>과 같은 프로그램이 서비스되고 있어, 전근대 인간 관계망을 보다 용이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시각화 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관계선이 어떠한 자료에 의해 이어진 것인지 근거 문헌이 함께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혈연·사승·교유 등 인물 관계의 여러 양상을 저마다 어울리는 형식으로 시각화해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보다 정확한 관계 파악과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적극 참고하되, 내용과 시각화 부분에 있어 보다 실용적·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³⁶ 다만 이것은 몇몇 개인의 차원이나 특정 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어려운(담당하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 시기·당파·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키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3. 문헌 유사도 검색 시스템

한시와 산문 영역을 막론하고 한문학 전공자들이 원전을 접하면서 궁금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읽고 해석하고 있는 작품이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으며, 작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적과 시문을 읽었기에 이러한 작품을 짓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당시(唐詩)-송시(宋詩)’, ‘진한고문(秦漢古文)-당송고문(宋古文)’ 논쟁의 사례를 통해

제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도식적 틀을 넘어 당대 문인 사이에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혀 있던 혈연·인척·사승·교유 등 인적 네트워크였다.

36 이와 관련하여, 근래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에서는 한국고전종합DB의 검색 시스템 및 정보 시각화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실제 차용된다면 향후 보다 용이한 연구 및 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인물 관계 정보의 전거 제시나 관계망 시각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민경주, 조정운, 정만호, 이향배(2022). 한국고전종합DB 개선방안 II: 인물관계망을 이용한 家系圖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62.

확인할 수 있듯, 한문이란 기본적으로 과거 모범적 시체/문체의 계승과 수용을 중시하는 언어 체계였다. 그렇기에 전범(典範) 참조, 전고(典故) 활용에 대한 태도가 현대와 달리 개방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파악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연구자 스스로가 폭넓은 독서를 통해 각 시풍/문체에 대한 높은 견식을 지니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혹 작가 자신이 별도로 남긴 독서 기록이나 언술이 존재하다면 대략적인 짐작이라도 가능할 터이지만, 그런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어떤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 테마일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카피킬러’, ‘논문 유사도 검사’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문헌 유사도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개발되어 이미 교육 및 연구 현장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한문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을 참고하여, 자료 비교를 통해 문헌·문형·출처·전거의 검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 모든 비교 대상을 확보하고 건주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전, 『고문진보(古文眞寶)』,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전후칠자·당송파·공안파의 저명 작품 등 주요한 서적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인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4. 디지털 인문학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떠올려본 것은, 디지털 인문학 플랫폼의 구축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관심과 주목 속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한문학 분야의 고전 DB만 하더라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를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종합DB>³⁷,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등 여러 주체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성과들이 저마다 서비스되고 있다. 또 전문한 바와 같이, 연행록·야담·여성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DB 역시 자체적으로 구축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DB뿐 아니라 국내외의 인문정보학적 성과나 고전 AI 자동 처리 관련 기술들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구축되고 있다.

37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db.cyberseodang.or.kr)

이와 같이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성과가 전방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제출되고 있는데 반해, 각 연구자들은 여전히 학회에서의 발표나 논문,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해당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행되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성과들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 플랫폼(허브(HUB))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 구축되어 있는 DB, 인문정보학 성과, AI 기술 발전 현황, 관련 연구 논문 및 연구 동향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디지털 인문학의 현재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 연구 또한 한층 활발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³⁸ ‘개방·공유·협업’이 디지털 인문학의 핵심 정신이라 한다면, 그 시작은 방대하게 산출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의 결과들을 함께 아우르고 나눌 수 있는 장(場)의 마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이상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한국 한문학 분야의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필자가 떠올려 본 몇 가지 안에 대해 언급해 보았다.

디지털 인문학은 그것이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한 이래, 인문학 교육과 연구 풍토를 적지 않게 바꾸어 놓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탓에 아직 개척 혹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으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행 착오 또한 종종 발견된다. 전통적인 연구 의식과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한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이 빠르게 다가오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점검하고 그간 쌓여 있던 학적 자산을 검토하여 연구 토대를 착실히 쌓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디지털을 통한 인문 정보의 시각화, 지식 지도 구축, 자동 고전 처리 등의 작업이 방대하게 축적된 한문학 자료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내실 있게 다지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38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그간의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dh.aks.ac.kr) 등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기관별, 주체별로 구분되어 있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성과를 한데 모아 즉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곳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개방·공유·협업’이라는 디지털 인문학 정신에 입각할 때 비로소 온전하고 정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이라는 공간이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고 있지만,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아직, 여전히 한발 한발 계단을 내딛는 과정을 쉽 없이 반복해 가야 한다.

[References]

- Jin, Jae-kyo (2022). Korean Classical Materials and Academic Platform. Daedongmun-hwayeongu, 117.
- Jung, Sung-hoon (2021). A Study on <Nanjungilgi> Using Topic Modeling and Network Analysi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97.
- Jung, Sung-hoon (2023). An Analysis on Ilseongrok using Structural Topic Model—focus on King Jeongjo’s Ilseongrok.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64.
- Kim, Hyeon (2013). Digital Humanities: Cooperative Scheme between Humanities and Cultural Contents. Humanities Contents, 29.
- Kim, Ji-sun, Jang, Moon-seok, Ryu, In-tae (2021). A Study on the Wiki as Writing Platform for Sharing and Collabor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60.
- Kim, Yong-soo (2017). Digital Humanities in Korea: Crisis, Hope, and Reality. 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22(2), 41-62.
- Kwon, Ki-Sung (2018). Methodological Transition and the use of Computers with Classical Literature. Journal of AI Humanities, 1, 9-29.
- Park, Hae-young (2023). A Study of mukjukdo Painting Poetry Using N-gram Analysis: Focusing on the Early Joseon Dynasty’s work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79.
- Park, Hae-young (2023). Interpreting the semantics of the Joseon Dynasty’s Yangsa Kyehoe Poetry Using N-gram Analysis.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72.
- Park, Ki-wan, Kwak, Ji-eun, Kim, Yong-tai (2022). The Discrimination between Hoonkoo and Sarim through the methodology of Digital Humanities.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63.
- Park, Soon (2020). An Introductory Research on Digital Archiving of Classical Chinese Literary Heritage about Korean Palaces. Journal of Nammyong, 68.
- Yang, Seung-mok, Ryu, In-tae (2022). Data of Yadam, Data from Yadam: Designing of Korea Yadam data model.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68.

한국 한문학 분야의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성과와 몇 가지 구상들

정용건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팀 선임연구원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디지털 인문학 선언을 계기로 인문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학문의 새로운 방법론의 하나로 조명 받게 되었다. 한국 한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인문학 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글은 그동안 한문학 영역에서, 디지털 인문학 방법에 의거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활용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디지털 인문학 선언이 이루어진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문학 분야에서 제출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 연구 성과의 의미, 보완점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문 정보의 시각화, 지식 지도 구축, 자동 고전 처리 등이 제시되었다. 이 작업은 한문학 자료의 방대한 양이 축적된 뒤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정리하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는 ‘개방·공유·협업’이라는 디지털 인문학 정신이 필요하다.

핵심어 디지털인문학, 디지털기술, 한국한문학, 개방, 공유, 협업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